그 숨결 그 아픔, 해남에서 시인을 만나다

글 · **김기선** ningirsu@naver.com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다. 비가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은 애초에 일기예보가 아니었다. 풍문이고, 미신이었다. 그 미신 앞에서 우리는 적잖이 난감했다. 싱그러운 남도의 여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올 생각에 부풀었던 사진기자도 김이 새 버린 눈치였다. 그러나 자운영꽃이 남도를 자줏빛으로 물들일 무렵부터 벌러 온 해남행이었다.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자두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해도 가야 했다.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누운 밤, 굵은 비가 때맞춰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상한 영혼의 노래

목포행 고속열차의 비좁은 좌석에 웅크려 불편한 꿈을 꾸고 일어나니 나주역이었다. 이제는 KTX의 시그널 뮤직처럼 돼 버린 숙명 가야금연주단의 캐논변주곡을 들으며 역사를 빠져나왔다. 광주학생독립운동사에 빛나는 그 나주역이 아니라 2001년 영산포역과 통합된 송월동의 신 나주역이다.

나주에서 해남까지 한 시간 길을 승용차로 달렸다. 전날 내린 비로 몸을 불린 영산강은 무겁게 몸을 뒤채고, 습기 머금은 골짜기마다 여름풀이 무성했다. 산허리를 휘어감은 구름이 이따금씩 잔비를 뿌려댔으나 폭우를 걱정할 날씨는 아니었다. 하늘 저편으로 비를 잔뜩 머금은 검은 구름덩이가 빠르게 물러가고 있었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소쿠리를 엎어놓은 듯 야트막한 솔산의 품에 안긴 이 마을은 1991년 6월 지리산에서 실족사한 시인 고정희가 태를 묻은 곳이다. 마을 입구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고정희 시인 생가 150m'. 표지판의 화살표가 시키는 대로 마을을 향해 곧게 뻗은 농로로 들어섰다. 삼산벌 너른 들판엔 논바닥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모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다.

마을 초입에 있는 고정희 시인의 생가는 금방 눈에 띄었다. 늘 열려 있기 마련인 대문을 지나면 마당 왼편에 시인이 나고 자란 기와집 —남정헌(南汀軒)— 이 있고, 오른편에 큰오빠의 살림집이 있다.

시인의 큰오빠는 12년 전에 작고하고 지금은 올케 혼자 농사를 지으며 두 채의 살림을 꾸려 가는 모양이다. 호박이며 콩, 옥수수, 참깨, 도라지가 포실하게 자라는 텃밭이며, 시인의 유품을 정갈하게 정리해 놓은 손길이 여간 깔끔하지가 않다.

고정희가 스무 살 무렵까지 문학의 꿈을 키운 남정헌은 큰방과 작은방이 상하로 연결된 독특한 구조다. 큰방과 작은방이 이어지는 곳에 걸린 나무 액자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시인의 좌우명이었다는 고행 · 묵상 · 청빈. 그 여섯 글자에 응축된 43년의 짧은 생애가 아프게 다가온다. 특유의 섬세한 열정으로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앞 열에서 불같은 시를 토해 냈던 여전사의 강인한 면모 뒤에 여린 것들, 이를테면 외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새삼 궁금해졌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980년대 중반에 만난 고정희 시는 짙은 슬픔의 바탕 위에서도 넉넉한 낙관주의를 꽃피우고 있었다. 그 넉넉함과 단단함은 운동과 문학의 경계에서 허우적거리던 내게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의 시에서는 진보하는 역사의 편에서 고통의 쓰라린 연대를 갈망하는 이들이 간혹 내뿜던 직수굿하면서도 은근한 뚝심이 만져지곤 했다. 그 뚝심의 배후에는 뒤늦게 입학한 한신대에서의 민주주의 수업, 5 · 18민중항쟁이라는 1980년의 격랑, 그리고 여성운동 과정에서 얻은 현실 인식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시혼(詩魂), 부재 속에서 더욱 빛나는

서가로 꾸며진 큰방에서 책을 뒤적이는데, 작은 방으로 들어간 사진기자가 연방 탄성을 지르며 작은 방 시인의 책상을 가리킨다. 책상 한가운데 독서대가 놓여 있고, 왼쪽에 구식 제도판에나 어울릴 법한 알 굵은 책상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고색이 창연한 이 책상등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묵상하고, 시를 썼다는 주인의 정갈한 일상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을 것이다.

시계는 6시에 멈춰져 있고 고정희 시인은 43세에 멈춰져 버렸다.

책상 주변에는 생전에 시인이 아끼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손때 묻은 LP판과 몇 개의 양초, 두터운 국어사전, 통기타와 커다란 여행가방, 6시에서 멈춰선 벽시계, 와인 병, 1980년대에 유행한 버튼식 전화기와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당장이라도 시인이 그 큰 눈을 껌뻑이며 방으로 들어설 것만 같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시인의 경건한 기도는 197~80년대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현실에 대한 비통한 기도로 이어졌다. 시인은 절망스런 세상에 작은 힘을 보태는 한편 시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 했다.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고 투쟁하며 시를 썼던 그는 이른바 우아한 '여류문인'은 아니었다. 많은 동료 문인들이 기억하는 시인의 마지막 모습도 매캐한 최루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었다.

그가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선두에서 써내려간 '거칠고 날선' 시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 여성해방 시편들의 시원(始原)은 '날선' 이념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였다. 고정희에게 어머니는 영원한 안식처인자 우주의 자궁이었으며, 그를 끝내 운동가 아닌 시인으로 남을 수 있게 해 준 시의 고향이기도 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나직이 불러 본다 어머니
짓무른 외로움 돌아누우며

새벽에 불러본다 어머니
더운 피 서늘하게 거르시는 어머니
달빛보다 무심한 어머니
–고정희, 「어머니, 나의 어머니」 중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켜 두었던 책상등이 그의 부재를 알리듯 갑자기 꺼졌다. 어둑한 방에 묵연히 서 있던 우리는 조심조심 죄지은 사람처럼 뒷걸음질 쳐 나왔다.

아늑한 산과 고요한 물가,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묻혀 있는 고정희 시인의 무덤에 도라지 꽃이 피어있다.

생가를 끼고 왼편으로 돌아가면 저수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언덕배기에 그의 묘소가 있다. 묘소 뒤엔 소나무 몇 그루가 든든히 등을 받쳐 주고, 앞에는 저수지를 응시하는 눈길이 외롭지 말라고 종려나무 한 그루 땡볕 아래서 김매는 아낙처럼 쪼그려 앉아 있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생각하니 고정희의 생가 '남정헌(南汀軒)' 의 정(汀)은 물가 정이다. 그러니까 남정헌은 시인이 나고 자란 생가이자 남쪽의 물가,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급류에 휩쓸려 생을 마감한 시인의 넋을 위로하는 집이기도 한 것이다. 고정희의 삶과 죽음이 오롯이 공존하는 이 집에서 시인이여, 안식 있으라.

해남에는 김남주가 없다

고정희와 함께 해남을 대표하는 또 다른 시인은 바로 1980년대 저항문학의 상징 김남주다. 김남주 시인의 생가가 있는 봉학리는 고정희 생가에서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동네였다. 그러나 봉학마을에 가서 나는 김남주를 보지 못했다. 지리산과 낡은 생가, 늙은 올케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고정희와 달리, 김남주는 거대한 실외 골프장과 민속마을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진 구조물 속에 갇혀 있었다. 우선, 마을 진입로 왼쪽에 무례하게 들어선 실외 골프연습장부터가 푸른 초원에 떨어진 불발탄처럼 생경하고 섬뜩한 광경이었다. 참깨며 고추가 푸지게 자라던 밭에 봉학골프클럽이라니, 평생을 민중운동에 헌신한 시인의 마을에 골프장이 웬말인가,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꼴불견이었다.

골프장을 지나 시멘트로 포장된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니 마을회관이 나타난다.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어진 구 마을회관 건물은 텅 빈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저만치 초가집이라기엔 너무 웅대하고 이질적인 건물이 귀

통이를 드러냈다. 몇 년 전 새로 복원했다는 김남주 생가다.

대문 옆 양철조각으로 만든 우편함에는 김남주의 동생 김덕종의 이름이 매직으로 씌어 있으나, 집안엔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로 단장한 생가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심정이 착잡하기만 했다. 김남주 시인의 시비도 있고, 김남주 시의 출발점이자 창작의 산실이었던 감옥을 재현해 놓은 공간도 있고, 시인이 생전에 읽었던 책들을 가지런히 모아놓은 서재 공간도 조성해 놓았건만, 어째 이 모든 것이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행처럼 만드는 한옥체험마을에 들어선 느낌이다.

게다가 시인이 기거했던 사랑채는 자물통까지 채워져 있었다. 그 자물통을 보는 순간 늘 열려 있다는 고정희의 방이 떠오르기도 하고,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라고 읊던 김남주의 넉넉한 웃음이 떠오르기도 했다. 걸어도 10분이면 당도할 두 집의 거리가 오늘따라 왜 이리 멀게 느껴질까. 닮은 듯 전혀 다른 두 시인의 짧은 삶과 엇갈린 사후의 운명이 오늘따라 우울하게만 느껴졌다.

머슴 출신 아버지와 애꾸눈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3남 3녀 중에서도 유난히 영특했던 둘째 아들, 째지게 가난한 농가에서 일손을 돕느라 공부다운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고, 흔해빠진 참고서 한 권 사보지 못하고도 '해남 신동' 소리를 들었던 그의 어린 날이 민속마을처럼 매끈하게 빠진 생가 '모형' 앞에서 생기를 잃는다.

김남주 시인의 시비도 있고, 김남주 시의 출발점이자 창작의 산실이었던 감옥을 재현해 놓은 공간도 있고, 시인이 생전에 읽었던 책들을 가지런히 모아놓은 서재 공간도 조성해 놓았건만, 어째 이 모든 것이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행처럼 만드는 한옥체험마을에 들어선 느낌이다.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김남주, 「노래」 중에서

김남주의 절창 「노래」가 새겨진 시비 앞에 망연히 서 있는데,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정광훈이 집안으로 쑥 들어온다. 그는 시름에 겨운 얼굴로 툇마루에 걸터앉아 가느다란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시인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우리는 사랑채에서 담배를 피워 문 그의 사진과 그가 썼던 286 컴퓨터, 은박지에 새긴 시편들을 둘러본 뒤 조용히 생가를 빠져나왔다.

미황사는 는개에 젖어들고

마지막으로 미황사를 돌아보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날 쏟아진 폭우 때문일까. 산사로 가는 길이 는개로 촉촉이 젖었다. 안개처럼 부연 는개는 바람에 이리저리 쓸리며 천년산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다시금 해남과 김남주를 떠올렸다.

내게 해남은 실은 '김남주의 마을' 이었다. 비 아니라 자두만한 우박이 쏟아진대도 해남에 가겠노라 다짐했을 때, 나를 지배했던 것도 실은 김남주였다. 삶이 지리멸렬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부엉이바위 위에 선 것 마냥 위태롭게 느껴질 때면 언제나 가고 싶었던 곳, 그곳은 실은 '해남' 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웅숭깊기 한량없고 단호하기 얼음장 같던 '전사의 마음속' 이었다.

1994년 2월. 췌장암으로 돌아간 김남주 시인의 영결식장에서 나는 울었다.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펑펑 울고 엉엉 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그렇게 울지는 못하였으리라. 오랜 영어 생활에서 놓여난 그를 먼발치에서 몇 번 지켜봤을 뿐 무슨 사연(私緣)이 있으랴. 1970년대 말 그의 영웅적 투쟁과 우유곽에 꾹꾹 눌러쓴 교도소 시편들을 기억할 뿐이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던 때였다. 운동의 선배, 존경했던 '어른' 들이 앞 다퉈 세상을 등지던 때였다. 많은 이들이 갇혀 있던 때였다. 그리고 또, 갇혀 있지 않은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사라져 '개인의 감옥' 에 스스로를 유폐하던 때였다. 나 또한 그랬다. 나 또한 날마다 죽어갔고, 날마다 사라졌으며, 내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럴 즈음에 들려온 그의 부음은 많이 이들에게 한 시대가 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그는 '불알을 돌멩이로 깨뜨려 버리고 싶' 을 만큼 혹독한 말기암의 통증과 싸우며 "개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개같이 헐떡거리며 살다 죽는다"는 마지막 절규를 남긴 채 죽었다. 출소한 지 고작 5년 만의 일이었다.

그 5년 세월은 그에게 감옥살이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 확립,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란 세계사적 대 격변 속에서 진보운동은 크게 후퇴했다.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져 / 난마처럼 어지러운' 세상은 '길은 내 앞에 놓여 있다 / 나는 안다 이 길의 역사를' 하고 당당히 선언했던 김남주를 '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 0.7평짜리 방으로' 라고 장탄식하게 만들었다.

짧은 인생을 혁명과 고난의 길에 바친 시인 김남주. 세상은 여전히 난마처럼 어지러운데 그는 가고 없다. 세상인심도 달라져 이제 그를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 복원된 그의 생가가 다소 미화됐다고 하지만, 오늘 나의 실망은 지나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혹, 내 실망의 안쪽에 제 안이한 일상을 가리고 목청으로만 '혁명' 하려는 위선과 허위의식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무 계산도 명예도 없이 짧은 생을 살다간 '물봉' 선생 김남주를 영원히 가난한 농민의 아들, 소외된 호남의 영역에 남겨두려는 것은 혹시 아닐까.

글 **김기선** | 1965년 서울 출생. 평전 작가. 저서로는 『저는 열네 살 선영이에요』,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이 있다.